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恩 正

2019年 2月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指導教授 卞 鐘 民

朴 恩 正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朴恩正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8年 12月

<국문초록>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朴 恩 正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卞 鐘 民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창래(Chang rae-Lee)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언어에 주목하여 주인공 헨리(Henry)의 정체성 확립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일언어주의가 남아 있는 미국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헨리가 자신의 언어가 통제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가 자신의 주체적인 언어를 찾아 나가면서 새롭게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인공 헨리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사회에서 소외를 당한다. 그는 주류가 지배하는 사회의 차별과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습득한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그에게 영어만이 유일한 언어로 존재하게 된다. 그는 주류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헨리는 한국의 문화와 사고를 담고 있는 한국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신의 한국계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영어는 주류 언어로서 비주류인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사용이 강요된다. 영어는 헨리의 한국어를 통제하면서 그의 한국계 정체성까지 통제하게 된 것이다. 주류 사회는 헨리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까지 제어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언어를 통제당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헨리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정체성 상실의 원인이 되는 강요된 언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민족인 루잔과 존 강은 헨리가 주체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체성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필리핀계 미국인 정신분석학자인 루잔은 헨리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강은 헨리가 한국어를 되찾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헨리는 자신의 언어를 찾으면서 분열된 자아를 회복하고 정체성도 회복하게 된다. 그는 자신을 주류 사회에 밀려 경계선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지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재정의 한다. 정체성을 확립한 그는 주류 사회를 위해 일하던 스파이 직업을 그만 두고 백인 아내인 릴리아의 영어 수업을 도우며, 소수 민족 아이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미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토록 이 소설은 언어를 통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심도 있게 통찰하며, 한국계 미국인 헨리가 주체적 자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본 논문은 201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정체성의 혼란	6
III. 정체성의 형성	20
IV. 정체성의 확립	33
V. 결론	42
참 고 문 헌	45
Abstract	48

I. 서론

이창래(Changrae-Lee)는 한국에서 태어나 3세 때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 1.5세대이다. 그는 데뷔작인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1995)를 발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서는 드물게 헤밍웨이상, 펠문학상, 반스 앤 노블 신인 작가상, 오리건 북 워드, 미국 도서상, 전미 도서 상을 수상을 수상한다. 이창래는 2011년에는 풀리처상 소설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매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언급 될 정도로 미국 문학계에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는 작가이다. 이창래는 1995년에 출간한 첫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시작으로 1999년 『제스처 인생』(*Gesture Life*), 2004년 『가족』(*Aloft*), 2010년 『생존자』(*The Surrendered*)에 이르기까지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다. 2014년 발표된 『만조의 바다 위에서』(*On Such a Full Sea*)에서도 이창래는 중국계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위치한 소수민족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주제로 글을 써오고 있다. 이창래는 개성있는 문체와 더불어 주인공의 직업을 스파이로 설정하거나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여느 작품과 다르게 위안부 사건을 가해자 시선에서 다루기도 하면서 소수 민족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작품을 읽어보게 만든다. 이토록 이창래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다룬 소설이 미국사회에서 호의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미국은 1620년부터 앵글로 색슨계의 이민이 시작된 이래 18-19세기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관계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별다른 이질성의 문제가 없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이른바 “미국의 용광로” (American Melting Pot) 개념이 있었다. 그 결과 이민자 대부분이 종교는 기독교, 언어는 영어, 직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다.¹⁾ 미국사회로의 동화란 결국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가는 것, 즉 미국화를 의미한다.²⁾ 그러나 20세기 들어 아시아,

1) Laurie Z. Rozakis,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lpha Book, 1999), p. 27.

2) Peter Duignan, *Bilingual Education: A Critique* (Palo Alto, CA: Hoover Institution, 1998), p. 18.

아랍,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여러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이질성을 지닌 사람들의 이민이 확대되면서 이민자들의 동질성은 점차 약화된다. 1960년대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을 기점으로 소수인종 및 민족의 문화적, 언어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가 시대적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³⁾ 이는 전통적인 단일언어주의나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을 통해 다원적 가치체계를 인정하며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미국적 동화주의를 주도해온 백인 주류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백인 주류사회와 유색 이민자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였고,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백인 주류 계층은 소수 민족보다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소수 민족을 미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길 꺼려하며 차별한다. 그 속에서 소수 민족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모국과 미국, 두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색이민 작가들은 미국 동화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를 일명 ‘소수민족문학’이라고 부르며 이 작품들은 백인 주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타자’ (Other) 혹은 ‘비주류’ (Outsider)로서 겪는 소외와 차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추구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이 논문에서 다룬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을 다루는 것을 아시아계 미국 문학이라고 한다.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품들은 탈식민적 주체성을 갖고 ‘서양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동양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⁴⁾ 아시아계 미국문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공헌한 일레인 킴(Elain H, Kim)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기원을 강용홀(Younghill Kang)과 카를로스 불로산(Carlos Bulosan)의 작품 속에서 찾으며, 아시아계 미국 작품에는 “작가가 스스로를 미국사회의 손님이나 방문객으로 보려는 자세에서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찾아가길 원하는 자세의 전

3) 변종민, 「이중언어교육과 선택의 갈등-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시각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4.2 (2002): 117.

4) 권혁경, 임진희,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변방적 자아상의 표현」, 『현대영미소설』 5.2 (1998): 15.

환 (transition from authors who view themselves as guests or visitors to those who want to find a place for themselves in American society)” 이 나타난다고 본다.⁵⁾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사용하여 글을 쓰지만 그들이 독자에게 보내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부분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품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 과정이 나타난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의 혼란은 드보이스(W. E. Burghardt Du Bois)가 미국사회의 흑인들에게서 발견한 “이중의식(twoness, or double-consciousness)”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드보이스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흑인은 “타자의 눈을 통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this sense of always looking at one’s self through the eyes of others)” 특별하고 이중적인 자아의식을 지닌다.⁶⁾ 아시아계 미국인들 역시 영어, 백인, 미국문화가 옳은 것이라는 주류 사회의 시선, 즉 원어민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 시선을 바탕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고 혐오한다. 이런 이중의식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은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되고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가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지키면서 ‘미국인’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미국사회 내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네이티브 스피커』 역시 많은 부분에서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특징을 갖는다. 이숙희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한국계 미국인 주인공이 미국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건을 발생시키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계 미국문학, 나아가 한국계 미국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⁷⁾ 이창래는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이중의식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며, 주인공 헨리 팍(Henry Park 한국명: 박병호)으로 하여금 이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도록 한다. 특히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중 언어로 인해 겪는 한국계 미국인의 혼돈과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겪는 삶의 갈등을 언어적

5) Elaine H Kim,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1982), p. 32.

6) W. E. Burghardt Du Bois, *The Souls of Black Folk* (Chicago: A. C. McClurg & Co., 1903), p. 3.

7) 이숙희, 「스파이와 모델 마이너리티를 넘어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주체의 가능성」, 『새한영어영문학』 51.2 (2009): 133.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파빌레노코(Pavljlenoko)가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정체성과 번역, 이동과 언어공동체의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표적인 작품이다”⁸⁾라고 말했듯이, 이 작품은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탐구를 다룬 경우, 둘째, 이 작품에 나타나는 한국의 이미지에 주목한 경우, 셋째, 언어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주인공의 정체성의 혼란을 다룬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부웅은 언어의 기표에 해당하는 적절한 기의를 찾아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하며, 헨리가 적절한 기의를 찾지 못한 채, 비어있는 기표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정체성 혼란의 원인으로 설명한다.⁹⁾ 고부웅의 논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지만 언어와 정체성을 개인과 사회의 다면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장경렬은 『네이티브 스피커』를 일종의 성장 소설로 보며, 헨리가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해석한다.¹⁰⁾ 박수정은 헨리의 영어에 대한 노력은 백인 사회에 동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헨리는 백인 아내인 릴리아의 표준 영어를 흉내내며 이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한다.¹¹⁾ 장경렬과 박수정의 논의는 헨리의 정체성의 원인을 이중 언어의 사용, 즉 언어의 형식 내에서만 설명하며, 언어 내용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들 연구들은 언어가 정체성 혼란의 원인이라는 것에 주목할 뿐, 실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8) Aneta Pavlenko, “Second Learning by Adults: Testimonies of Bilingual Writer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9.1 (1998): 3.

9) 고부웅, 「이창래의 『원어민』-비어있는 표기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3 (2002): 619-638.

10) 장경렬, 「정체성의 위기, 언어의 안과 밖에서 - 이창래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읽기」, 『문학관』 1.3 (2002): 280-300.

11) 박수정,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22 (2004): 111-131.

바탕으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창래가 언어로 인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혼란과 형성 과정을 주인공 헨리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II장에서는 미국 주류 사회의 구성원인 백인들에 의해 강요된 영어가 헨리의 언어를 통제함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헨리가 스파이 활동 중 소수 민족인 루잔(Emile Luzan)과 존 강(John Kwang)을 만나면서 정체성을 모색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그의 주체적 언어 찾기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정체성을 형성한 헨리가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 부모 세대의 언어는 물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소수 민족 언어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II. 정체성의 혼란

1965년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이 개정된 이후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등 유색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규모 유입된다. 제도적으로 미국사회는 유색 이민자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민권도 보장해주지만, 현실적으로 주류 사회를 구성하는 백인들은 유색 이민자들을 미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길 주저한다. 백인들은 유색 이민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들 고유의 모국어 사용도 흔쾌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색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배우지만 서투른 영어로 인해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나아가 영어와 모국어 사이에서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창래는 유색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임에도 언어와 인종의 장벽으로 인해 겪었던 언어 결핍과 혼란의 경험을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 보여준다.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창래의 다양한 자전적 요소를 포함하며 언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했던 작가의 성찰적 기록이다. 주인공 헨리가 언어 교정 수업에서 영어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이창래가 영어 말하기 학교(English-Speaking School)에 다니면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억압받았던 경험을 담은 것이다.¹²⁾ 또한,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이루지 못한 헨리의 부모가 헨리에게 영어를 잘하도록 부추기는 모습은 이창래의 어머니와 닮아있다. 그녀는 “내가 음식을 사기 위해 쇼핑하거나 너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아라,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하는지 보아라.(look how hard it is for me to shop for food or speak to your teachers, look how shameful I am, how embarrassing.)”¹³⁾라고 말하며 아들인 이창래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영어를 배우도록 권유하였다. 이창래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언어적 한계

12) Peter Monaghan, “A Korean-American Novelist’s Impressive Debut,”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41.30 (1995): 6.

13) Chae-rae Lee, “The Faintest Echo of Our Language,” *Bold Words: A Century of Asian American Writing*, ed. Rajini Srikanth and Esther Iwanaga. (New Brunswick: Rutgers UP, 2001), p. 24.

로 미국사회에서 이방인이 된 주인공 헨리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방인의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아들이 영어를 열심히 배워 ‘진정한 미국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모습과 닮아있다.

헨리는 출생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며, 하나의 언어, 즉 한국어를 그의 유일한 언어로 인식하며 자라게 된다. 그러나 헨리는 미국 공교육을 받게 되면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며 헨리는 머릿속에서 두 언어가 충돌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하며, 헨리는 자신이 혼종 언어 사용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헨리는 익숙한 한국어와 새로 배우게 된 영어를 비교하며 영어를 “마치 다른 종류의 외투를 입는 것과 같이(like another kind of coat you could wear)”¹⁴⁾ 한국어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헨리는 “언어 교정 수업”(Remedial Speech)을 받으면서 영어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깨닫게 된다. 이 수업은 겉으로 보면 학교가 특별히 영어 사용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호의”(goodwill)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헨리는 이 수업이 언어 능력을 보충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업은 언어를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아이들을 분류하고 소외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내가 매일 특별 수업을 받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교실을 나갈 때면 앨리스는 나를 조롱하곤 했다. 내가 받는 특별 수업은 ‘언어 교정’이었으며, 나는 그 수업 이름 자체를 발음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 . .우리는 학교의 지체아들, 정신박약아들, 실패자들이었다. 말을 더듬거나, 화를 내며 길길이 뛰거나, 바지에 오줌을 지리거나, 필요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Alice used to sneer at me when I left our class for my special daily period upstairs. The class was Remedial Speech, and I accepted my own presence there if only because of the very trouble I had pronouncing it. . . .We were

14) Chang-rae Le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p. 233. 이하 소설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를 표기함. 번역문은 이창래(정영목 역), 『영원한 이방인』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5)를 참고하였음.

the school retards, the mentals, the losers who stuttered or could explode in rage or wet their pants or who just couldn't say the words. (pp. 234-235)

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문제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이 수업에 선발된다는 것은 학교에 의해 정규 수업을 듣는 원어민 학생들과 분리되어 비정상인 또는 주변인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다. 헨리는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는 학교가 헨리의 서투른 영어를 비정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를 정상 범주에서 배제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당시 미국에서 ‘표준 언어’로서 ‘영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언어가 소통수단이기 이전에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배제의 수단이 되어 버린다.¹⁵⁾ 그러므로 이창래는 당시 소외당하지 않고 주류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던 유색 이민자의 고통과 상황을 헨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헨리는 공식적인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단지 수업 이름인 ‘언어 교정’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이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런데도 헨리의 부모님은 이런 불합리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헨리의 부모님이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만큼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헨리의 부모님은 “미국적인 것” 들에 순응하며 살아왔고 평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국적인 것은 다 믿어야 한다 (We believed anything American.)” (p. 52)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오히려 헨리가 영어를 배우길 바란다. 결국, 헨리는 부모님처럼 그저 영어를 “미국적인 것” 이기에 믿고 따른다.

원어민들은 영어를 가지고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고 사회에서 비주류를 소외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어는 다른 언어와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항상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비원어민들보다 높은 권력과 위치를 지닌다.¹⁶⁾ 원어민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유색 이민자

15) 서은경, 「 ‘영원한 이방인’ 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 배반의 삶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 의 생존방식 탐구- », 『우리어문연구』 58 (2017): 106.

들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은 마찰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헨리를 “공깃돌 입(marble mouth)” (p. 234)이라고 놀리고, 백인 여자아이 엘리스(Alice)는 교정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헨리를 조롱한다. 헨리가 훗날 “어쨌든 이야기는 그들(원어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한다. 언어에는 방패가 있고, 우리(유색인종)에게는 공평하게 싸울 수단이 없다(The talk somehow works in their favor, there's a shield in the language, there's no fair way for us to fight.)” (p. 244)고 회상하듯,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영어를 가지고 놀려도 아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헨리는 주류 사회의 무시와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도 원어민과 동등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백인들에게 지배당하는 흑인들이 언어를 정복하면 “형언 불가능한 힘”을 얻게 된다고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¹⁷⁾ 즉, 지배언어인 영어가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다.¹⁸⁾

공교육을 받으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나간 헨리는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한다. 반면 아버지는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청과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손님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구사만 가능하다. 헨리는 아버지가 “네 눈이 온통 이끌렸구나.(led, 빨갳다는 뜻의 red를 잘못 발음한 것) (Your eyes all led.)” (p. 234)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L과 R의 발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어를 비웃는다. 헨리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한국어에서 구별되지 않는 L과 R 발음 때문에 힘들어했으면서도, 같은 처지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놀리던 원어민 아이들처럼 영어를 무기로 아버지 발음을 조롱한다. 다시 말해 헨리는 영어 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상하 관계를 판단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인 아버지에게 언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 때 영어를 절대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상대방보다 영어를 잘 구사하다면 그만큼 권위와 권력의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헨리가 아버지의 영어 발음을 비웃는 행동은 언어 권력이 원어민에게서 비원어민에게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비원어민이 또 다른

16) Robert Phillipson,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P, 1992), p. 30.

17)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p. 18.

18) Phillipson, p. 27.

비원어민을 향해서도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토록 영어 실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주류의 시선을 가지게 된 헨리는 서투른 영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어를 사용하는 아버지 자체를 무시한다. 헨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헨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의 근원인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그가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부모를 비롯한 타자의 영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도 ‘표준 영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주류 백인 사회의 시선으로 보자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헨리는 무시와 냉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헨리는 스스로 한국어의 흔적을 지워내고자 한다. 헨리에게 한국어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절대 한국어를 사용하여 살아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불타버리는 언어(burning language that I once presumed useless, never uttered and never lived)” (p, 285)가 된다. 헨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다. 언어와 문화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포함하므로 언어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안철택은 인간적 삶에 대한 이념은 문화적 전통 속에 담겨 있으며, 그 전통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모국어 체계에서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⁹⁾ 그러므로 헨리가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국의 역사와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영어는 헨리가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의 한국인의 민족성을 표출할 수단이 되지 않는 못한다. 그럼에도 헨리는 자신에게서 한국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완벽한 미국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길 뿐이다. 하지만 헨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한국인의 외모,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는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그에게서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고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한국어와 문화를 거부할수록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뿐이다. 따라서 헨리가 올바른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

19) 안철택, 「문화계국주의와 언어의 다양성」, 『독일문학』 100 (2005): 172.

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헨리의 아버지마저도 미국사회 내에서 자신과 같은 비주류의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헨리가 한국인의 모습을 지워내길 바라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헨리 가족은 아버지가 장사에 매달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덕분에 미국 중산층이 사는 동네인 애슐리(Ashely)로 이사를 간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이웃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해도 이웃들은 “이 지역이 우리의 존재를 겨우 용납하는(He mostly operated as if the town were just barely tolerating our presence.)” (p. 53) 정도로만 헨리 가족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헨리의 가족이 원어민 중상층과 같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중산층 백인들은 그들과 같은 사회적 위치를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헨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농구 경기를 보러가서도 응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올 정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다. 헨리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남는 것은 힘들다.(In America, it is hard to stay Korean in America.)” (p. 51)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헨리가 미국인으로 살길 바라고, 이런 아버지의 바람은 헨리의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상실은 더욱 부채질한다. 헨리가 한국의 민족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아버지마저도 헨리가 영어를 배우고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함으로써 헨리는 한국어를 더욱 경멸하고 무시하게 된다.

헨리는 자신이 한국인의 모습을 잃어가는 지도 모른 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영어 습득에 몰입한다. 헨리는 미국 공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한 결과 성인이 된 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영어를 잘 구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대해 과도할 정도로 자의식을 가진 헨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자기 자신의 영어 발음과 억양이 ‘표준 영어’에 벗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헨리의 이러한 자의식은 릴리아를 만났을 때도 드러난다.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표정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맞추어 보라고 한다면, 원어민이 아니라는 쪽에 걸췌어요. . . .릴-야 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모음 소리를 귀여겨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

You look like someone listening to yourself. You pay attention to what you're doing. If I had to guess, you're not a native speaker. . . . You said Leel-ya so deliberately. You tried not to but you were talking in the sound of syllables. You're very careful. (p. 12)

헨리는 집요하게 의식적으로 완벽한 미국인의 영어로 발화하려고 노력한다. 헨리는 자신의 언어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잘못된 어조나 사소한 실수를 찾아낼 정도로 억양과 발음을 신경 쓴다. 헨리는 릴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그녀의 언어를 세밀히 분석하고 놓치는 단어 없이 완벽하게 단어를 짚어내면서 발음하는 그녀의 발화에 감탄한다(p. 10). 헨리가 특히 원어민인 릴리아의 발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말을 원어민들의 말과 비교하고, 자신의 말이 원어민들의 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즉, 헨리는 자신의 주체적인 기준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남의 기준, 주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헨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적인 자아 없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타자인 주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헨리는 미국 내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겪는다. 헨리가 영어 실력을 늘리면서 ‘표준 영어’에 가까워지는 것은 가능했지만 동양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백인처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수록 헨리는 더욱 더 언어에 집착한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를 완벽히 구사한다 해도 헨리가 인종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헨리에게 릴리아는 영어뿐만 아니라 백인이라는 특징도 갖고 태어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며 부러움의 대상이다. 헨리는 미국사회로의 완벽한 동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릴리아와 결혼을 통해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헨리는 “릴리아와 그녀의 가족이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는 것을 도와줄 것(the assumption being that Lelia and her family would help me make my way in the land)” (p. 58)이라고 믿으며, 릴리아가 가진 인종적 혜택을 빌려 주류 사회에 가까워지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백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된 흑인들이 자신의 인종의 정체성을 지우고 백인의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20) 조규익, 「바벨탑에서의 自我 찾기」, 『어문연구』 34.2 (2006): 167.

그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을 기피하고 백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에게서 백인의 모습을 확장시키려 한다.²¹⁾ 헨리가 릴리아를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나의 미국인 아내(my American wife)” (p. 8)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인종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언어를 통해 잘 보여준다.

헨리의 무조건적인 동화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헨리는 릴리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그의 자식이 한국인의 특징은 최대한 물려받지 않고 미국인에 가깝게 태어나길 바란다. 헨리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미국인의 혈통을 갖지 못했지만, 그의 자식이 백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다면 반은 미국인의 혈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헨리는 아들 미트(Mitt)가 자신보다는 미국사회로의 동화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헨리는 미국사회로 동화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동양인의 외형적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라도 미트가 영어만을 사용하길 바란다.

릴리아는 주말에는 한인 학교에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고국의 언어를 결코 배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생각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 애가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감각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내 희망이기도 했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삶. 그 래야만 아이의 반은 노란색인 넓적한 얼굴로는 얻을 수 없는 권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이것은 동화주의적 감성이며, 나 자신과 이 땅의 추하고 또 반은 맹목적인 로맨스의 일부이기도 하다.

Despite Lelia's insistence that he go to Korean school on the weekends, I knew our son would never learn the old language, this was never in question, and my hope was that he would grow up with a singular sense of his world, a life univocal, which might have offered him the authority and confidence that his broad half-yellow face could not. Of courses, this is assimilationist sentiment, part of my own ugly and half-blind romance with the land. (pp. 266-267)

릴리아는 미트가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21) Frantz, p. 68.

미트가 한국인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을 찬성 하며, 그를 한인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헨리는 자신이 한국의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트가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구세대의 언어(the old language)” (p. 266)인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배우길 바란다. 이는 한국어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어를 배우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헨리는 미트가 두 가지 언어를 배워도 자신처럼 20년 후에는 한국어 단어들 다 잊어버릴 것이므로 굳이 미트가 한국어를 배웠다가 다시 지워내는 수고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헨리는 미트의 완벽한 영어 구사능력을 위하여 릴리아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미트가 그녀의 모범적인 발음을 듣고 따라 하기를 바란다. 미트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헨리의 행동은 결국 아들에게마저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철저히 지워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태도는 헨리의 아버지도 갖고 있었던 모습으로 이창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후손들에게 모국어를 물려주지 않고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경향을 헨리의 아버지와 헨리를 통해 보여준다.

아버지 또한 언어를 권력의 도구로서 종종 남용하는데, 그 상대는 바로 어머니이다. 헨리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사용하곤 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용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단어인 “거리의 욕설(street talk)” (p. 63)을 어머니에게 내뱉는다. 그러나 가정주부인 어머니는 영어를 접하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영어 실력이 아버지만큼 못하다. 아버지의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어머니가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어 단어는 “노, 노 (No, no)” (p. 63) 정도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권력의 수단으로 행사한다. 아버지에게 있어 영어는 낯선 미국 땅에서 아내보다 더 미국화 된 자신을 과시하며 가부장으로서의 위신을 세우는 도구인 것이다.²²⁾ 헨리는 어머니를 위협하는 아버지를 두고 볼 수 없었고 아버지와 같은 방식, 즉 상대방이 사용할 수 없을 거 같은 고급 단어를 내뱉으면서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와 싸운다.

22) 우제원, 「Ralph Ellison의 *Invisible Man*과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인물 정체성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2004), p. 64.

나는 부모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아버지에게 고향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의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여 아버지가 애용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겁과 불공평함에 대해 보복을 하자, 아버지는 마침내 탁자를 두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유 셋 업! 유 셋 업!”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계속 몰아붙였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는 가장 큰 말들, 학교에서나 사용하는 “소시오 이코노믹” 이니 “인텐저블” 이니 하는 말들, 내 어지럽게 떠오르는 생각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아버지에게 내뱉었다.

I broke into their argument and started yelling at him, making sure I was speaking in complete sentences about his cowardice and unfairness, shooting back at him his own medicine, until he slammed both palms on the table and demanded, “You shut up! You shut up!” I kept at him anyway, using the biggest words I knew, whether they made sense or not, school words like “socioeconomic” and “intangible” anything I could lift from my dizzy burning thoughts and hurl against him. (p. 63)

이는 헨리가 아버지의 가식적이고 과장된 영어 사용에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헨리가 내뱉은 “소시오 이코노믹” 이니 “인텐저블” 과 같은 단어는 싸움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이다. 오히려 상황 상 아버지가 사용한 “거리의 욕설” 이 싸움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닌, 어려운 영어 단어와 완벽한 영어 문장의 사용이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고급 영어를 사용하여 언어적으로 미국인에 가까운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 구사능력이 사회적 힘의 크기와 비례하는 현상을 헨리와 아버지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²³⁾

아버지는 헨리에게 가식적이고 과장된 영어 사용을 부추긴다. 헨리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도울 때, 아버지는 헨리에게 백인 손님들 앞에서 “셰익스피어 말 몇 마디(some Shakespeare words)” (p. 53)를 해보라고 다그친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있

23) 조규익, p. 169.

어 헨리는 자신의 언어적 결함을 채워주는 자신의 분신이자 자랑거리이다. 아버지는 백인들 앞에서 아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아들이 미국인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백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딸들”은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본적 역할을 넘어서, 이민자도 미국인이 될 수 있음을 과시하는 도구가 된다.²⁴⁾

영어를 권력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헨리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경제학 용어나 문학용어와 같은 고급 단어를 사용한다. 가식적이고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헨리는 상대방에게 진실 된 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헨리는 항상 대화 시 내용 자체보다는 발음과 억양에 더 신경을 쓴다. 헨리는 사소한 발음과 억양의 실수로 인해 자신이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완벽하지 못한 영어 사용은 헨리가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거부하고 영어가 그의 유일한 언어인 상태에서 헨리는 영어로도 진실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헨리는 타인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고려하다보니 정작 언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헨리가 스스로 진정성을 담아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인주류 계층은 헨리의 말을 제어한다. 헨리가 일하는 스파이 회사, 글러머 앤드 컴퍼니의 백인 사장인 호글랜드(Hogland)는 스파이로 활동하는 헨리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바른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말하도록 요구한다.

“그저 뒷자리에 있어야 해. 불분명하고 평범하게 말야. 사람들이 네 목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말하라고. 그 이상은 안 돼. 아무도 네가 누군지 두 번 생각해선 안 된다고. 핵심은 말야, 사람들이 한번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말고.”

“Just stay in the background. Be unapparent and flat. Speak enough so they can hear your voice and come to trust it, but no more, and no one will

24) 우제원, p. 23.

think twice about who you are. The Key is to make them think just once.
No more, no less.” (p. 44)

이처럼 헨리는 언어적으로는 물론 직업적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오직 상대방에게 믿음직하고 거슬리지 않는 존재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표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백인 주류 계층은 심지어 유색 이민자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말을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치가 존 강의 사무소에 폭발로 인한 불이 나 사망자가 나자, 미국사회는 용의자를 유색 이민자로 설정해 놓고 그들 사이의 갈등이 미국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도하며, 이 사건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기자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한인 아무하고나 인터뷰를 하고, 이들이 말하는 어설피른 영어를 토막 내어 자르고 편집하여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들의 말(they always came off as brutal, heartless)” (p. 193)로 둔갑시킨다. 백인 주류 계층은 유색 이민자들을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여기고 유색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미국사회에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싫어한다. 백인 주류 계층이 유색 이민자의 대화마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헨리가 영어의 형식에 치우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헨리가 더욱 더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요컨대 헨리는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헨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다. 헨리 스스로가 “진짜 문제가 닥치면 나를 잠가버린다 . . .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When real trouble hits, I lock up.... I can' t speak.)” (p. 147)라고 밝히듯이, 그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할 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헨리는 그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처럼 침묵은 헨리의 권력 상실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 할 자기주장의 권리 역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헨리는 자신의 개인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잃어가면서까지 미국인이 되고자 하나 미국 주류 계층은 헨리를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헨리가 사용했던 고급 영어 단어는 오히려 원어민들이 헨리를 이방인으로 간주하게 할 뿐이다. 원어민들의 관점에서 모국어인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장사라는 상황에 맞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외우는 것을 백인이라면 전혀 시도하지 않을 행동이다. 그리고 보통 원어민들은 자신의 사소한 발음이나 억양을 실수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헨리의 의식적인 영어 사용은 그가 미국인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이방인’이라는 표식을 달아줄 뿐이다.

결정적으로 헨리의 아들인 미트가 미국사회로의 동화에 실패하는 것은 백인 주류 계층이 헨리를 포함하여 유색 이민자들을 ‘완벽한 미국인’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음을 암시한다. 헨리와 미트 중 누가 미국인의 모습에 근접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백인을 엄마로 두고 태어났으며, 영어를 잘하는 미트가 미국인의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헨리는 미트가 자신보다 백인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미국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백인의 모습을 지녔지만 동양인의 모습도 가진 미트를 “멧, 몽그렐, 해프브리드, 바나나, 트윙키”(mutt, mongrel, half-breed, banana, twinkie)” (p. 103)와 같은 말로 놀리고 땅바닥에 쓰러트리고 입에 흙을 넣는 방식으로 미트를 괴롭힌다. 어느 날 미트는 아이들과 개 썰기 놀이를 하다 질식사 당한다. 미트의 죽음은 무조건적인 동화에 대한 헨리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며, 동시에 헨리의 “갈아지기”나 “속해지기”와 같은 동화 방식으로는 미국인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²⁵⁾ 작가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국인이 될 수 없으며 미국에서 그들은 미국인이 아닌 “내부에 존재하는 외국인 (foreigner-within)”²⁶⁾으로서 존재함을 표현한다.

헨리의 아버지, 헨리 그리고 헨리의 아들 미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그들이 꿈꾸던 완벽한 동화에는 실패한

25) 이선주, 「미국이주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소설』 15.1 (2008): 107.

26) Lisa Lowe,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P, 1996), p. 145.

다. 이창래는 헨리를 통해 주류 백인의 의도대로 미국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주장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은 모범적인 소수 민족의 전형이 된 유색 이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류 사회가 유색 이민자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으로의 동화에 꿈을 갖길 바라는 것은 유색 이민자들을 억압하고 식민성을 키우기 위함이다.²⁷⁾ 작가는 이러한 헨리의 모습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인의 모습을 지워냈지만 미국인이 되지도 못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헨리는 미국사회의 유일한 공용어나 마찬가지로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동화를 향한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영어를 배운다. 그러나 이토록 사회적으로 강요된 언어인 영어는 헨리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본래 지닌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나아가 백인 주류층은 헨리의 영어 발화까지 제어하면서 그가 개인의 정체성마저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창래는 백인 주류 사회가 어떻게 영어를 통해 미국사회의 소수 민족을 자신들이 제어하기 쉬운 모범적 계층으로 만드느지를 보여주고 있다. 헨리가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강요된 언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언어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헨리가 가식적이고 과장된 영어 사용에서 벗어나 언어의 형식에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언어를 찾아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7) Frank Chin, *The Chickencoop Chinaman and the Year of the Dragon: Two Plays* (Seattle and London: Washington Press, 1981), p. 13.

Ⅲ. 정체성의 형성

타자가 만들어 낸 헨리의 정체성은 그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므로, 헨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태를 자각한 후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주류 사회에 길들여진 헨리가 스스로 정체성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창래는 헨리가 다양한 유색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이창래는 존슨(Sarah Anne Johnson)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 헨리의 직업을 스파이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나는 그(헨리)가 바깥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특히 정치인 존 강을 관찰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습니다. 헨리가 다양한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그가 다양한 언어를 그리고 영어의 다양한 형태와 관점에 대해 고민하고 관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I wanted an occupation for him in which he'd have to get out in the world and see others, particularly the politician John Kwang. I liked the fact that, because Henry Park was dealing with different immigrant populations, he was dealing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forms and stages of English.²⁸⁾

이창래는 헨리가 다양한 유색이민자의 영어를 접하면서 ‘표준 영어’만 옳다는 생각에서 탈피하도록 의도한다. 그 결과 헨리는 표준 영어만을 갈망하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한 영어와 한국어를 받아들인다.

스파이 회사를 운영하는 호글랜드는 임무를 맡길만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 호글랜드가 찾는 유형의 사람들은 많은 훈련과 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헨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항상 사회에서 소외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다. 백인 중심의 미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한(perpetually ostracized)” 아시아계 미국인의 처지는 겉으로 드

28) Sarah Anne Johnson, *The Very Telling (Conversations with American writers)*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6), p. 110.

러나지 않는 은밀한 관찰자에 머물러야 하는 스파이의 처지와 비슷하다.²⁹⁾ 즉, 이 작품에서 헨리는 이미 스파이처럼 비가시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던 것이다. 또한 헨리는 백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어느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지 이미 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파이에 적합한 인물이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달리 백인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 익숙하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스파이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호글랜드는 아시아계 미국인인 헨리에게 스파이 직업을 제안하고 헨리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제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취업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스파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헨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개성을 지니지 못한다. 헨리는 자신의 기준보다 주류의 기준에 맞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능통하다. 헨리는 항상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고, 어쩌면 동시에 몇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I had always thought that I could be anyone, perhaps several anyones at once.)” (p. 127) 따라서 헨리는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 인물로 변장해야하는 능력이 필요한 스파이 일에 적합하다. 헨리는 이런 유동적인 정체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겉으로 볼 때 나는 알려진 기준에서 보아도 흠 하나 없는 짝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잘 해냈다.(On paper, by any known standard, I was an impeccable mate. I did everything very well enough.)” (p.161)고 회상하며 직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충분히 잘 해내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한다. 헨리는 주체적인 삶이 아닌 타인에게 끌려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창래는 헨리를 통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자—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어쩌면 동시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정착하여 고정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자, 즉 이민자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³⁰⁾ 스파이의 유동적인 정체성은 헨리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를 넘나드는 정체성을 가진 것과 비슷하다. 헨리에게 아

29) Tim Engles,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Multicultural Literatures of the United States*, 22.2 (1997): 140.

30) 안광,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9.3 (2010): 156.

직 남아 있는 한국인과 새로 획득하려는 미국인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헨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둘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못한다. 이는 헨리가 불완전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지닌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헨리가 뚜렷한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불안하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진 상태일수록 스파이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즉, 그가 스파이로서 인정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호글랜드가 운영하는 글리머 앤드 컴퍼니(Glimmer & Company)는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난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된 회사로서 기득권에 저항하고 피해를 주는 유색 이민자들의 정보를 염탐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인 기득권층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 중 유색 이민자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유색 이민자들을 미국사회에서 곤경에 처하게 한다. 헨리는 자신과 같은 유색 이민자들을 해하면서 기득권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주류 사회에 속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류 집단의 권력 유지를 돕는다. 호글랜드는 정체성이 모호한 아시아계 미국인 헨리를 이용할 뿐이지만 헨리는 스파이라는 직업이 미국사회에서 비주류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 일자리가 생긴 것에 감사해한다. 그는 미국사회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일자리를 찾았다고 여긴다.

헨리는 유색 이민자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염탐의 대상인 유색 이민자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헨리의 정체성 탐색은 필리핀계 미국인 루잔으로부터 시작된다. 루잔은 정신과 의사이며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의 지지자이다. 헨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지만, 우울증 1기를 앓고 있는 환자로 가장한다. 헨리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울증 환자로 헨리의 실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 헨리는 상담을 계속하면서 자신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차이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 본연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 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스파이로서 자기 본연의 모습과 변장 인물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는 적합지 않다. 그렇지만 헨리가 자신과 닮은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창래는 헨리가 스파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헨리는 자신의 신체, 즉 껍데기에 가상의 인물의 배경과 삶을 집어넣어 자신이 맡은 환자 역할을 연기한다. 가상의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허구이지만 어느 정도 진실성을 부여한 전기, 즉 “전설(Legend)” (p. 181)이 필요하다. 따라서 헨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성격과 삶을 바탕으로 전설을 만들어낸다. 그는 루잔과 전설을 바탕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는 도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빌려오다 자신에 대해 털어놓게 된다. 헨리는 꾸며낸 전설을 모두 소모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전설을 수정하거나 일을 중단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헨리는 루잔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친구라 생각하고 동료나 아내에게도 털어 놓지 않았던 고민이나 그동안 가슴 속에 억눌러왔고 숨겨왔던 말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는다.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가지 않고, 이야기의 끈을 끌고 가 핵을 통과했다. 내 삶에 관해 무릅없이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관련된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심지어 죽고 없는 아들 이야기까지 했다. 나는 위험할 정도로 솔직해지고 있었으며, 일관성을 잃고 정신분열증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I was no longer extrapolating; I was looping it through the core, freely talking about my life, suddenly breaching the confidences of my father and my mother and my wife. I even spoke to him about a lost dead son. I was becoming dangerously frank, inconsistently schizophrenic. (p. 22)

헨리는 진실해지고 싶은 욕망을 루잔에게 표현한다. 그는 더 이상 호감이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 헨리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또한, 헨리는 자기 영어의 억양이나 발음이 올바른지 의식하지 않고 루잔과 대화에만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헨리는 미국인이 되

기 위해 억양이나 발음을 의식하고 주류 사회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다.

헨리는 루잔과의 초반 상담을 통해 진정성 없이 가식적인 내용을 말하던 행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재 상황과 고민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헨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 단계이다. 헨리는 루잔과의 만남 및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헨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정체성 형성의 시작점이 된다. 헨리가 표현한 “정신분열증적(schizophrenic)” (p. 22) 증후는 그가 본래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정신적 혼돈이자 정체성 상실의 증상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아라고 믿었던 미국인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마주치면서 두 자아 사이에서 분열을 느끼는 증상이다. 헨리는 드디어 자신이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라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스스로 미국인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속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헨리는 루잔과 상담 도중 “자신을 잃어버렸다(I completely lost myself.)” (p. 22)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정체성 상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신”은 이제까지 헨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주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거짓된 자신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정체성 회복의 신호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식적인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이며 역설적이게도 헨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깨달음의 순간이다.³¹⁾

루잔은 두서없이 자신에 관해 털어놓은 헨리의 이야기를 듣고 헨리의 정체성 문제를 알아차린다. 상담 도중 루잔이 헨리에게 하는 말들은 헨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대면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마주할 때에 비로소 헨리는 과거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정체성을 복구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루잔은 헨리에게 “지나온 삶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커다란 서술구조의 그릇을 통해 보라.(He asked me to look at my life not just from a singular mode but through the crucible of a larger

31) 이해경, 「이창래의 *Native Speaker* 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회복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 48.

narrative.)” (p. 206)고 권유한다. 루잔이 “더 큰 서술 구조의 그릇” (p. 206)이나 “문화적 차원(A cultural one)” (p. 133)에서 그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헨리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적 관계와 혈연관계 속에서 헨리가 자신의 정체성의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작가가 루잔의 입을 빌려 헨리의 정체성 상실 문제가 헨리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색 이민자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다.³²⁾

루잔은 헨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도록 자극한다. 루잔은 헨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젊은 친구, 당신은 평생 누구였습니까?(Who, my young friend, have you been all your life?)” (p. 205)라는 헨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물음을 던짐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든다. 루잔의 자극으로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언어로 드러내는 연습을 시작한다. 이 때 루잔이 헨리의 정체성 문제를 눈치 채고 헨리를 자극하자 헨리는 자신의 이상형, 즉 이상적인 자아와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 상태를 자각하는 단계를 지나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로 헨리가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헨리의 이상적 자아를 알아내기 위해 영웅이나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루잔의 질문에 헨리는 허구이지만 자신이 생각해왔던 형의 모습을 묘사한다. 형은 헨리와 대조되는 인물로 헨리가 자신의 것으로 바라던 진실한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헨리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아니지만 그가 꿈꿔왔던 자아가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주체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 형은 공부와 운동을 잘하고 흑인이나 백인 등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형을 좋아하고 우러러본다. 헨리가 친구들과 사이에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반면 형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인종적 배경에 구애됨이 없이 친구들에게 우상이 되는 인물이다. 형을 이상화하는 헨리의 자아 속에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싶은 마음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헨리가 이토록 자기 주체적 자아를 바라는 것은 이제까지 믿음직하지만 눈에 띄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바라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32) 왕철,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엇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 3 (1996): 23.

있다.

어떤 형식의 이름을 사용하는가는 개인이 어떠한 민족성을 갖는지를 반영한다. 이창래는 본인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영어 이름을 고집한 적이 있다고 회고한다.³³⁾ 이창래가 자신을 투영한 인물인 헨리도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본래 한국 이름 ‘박병호’ 대신 ‘헨리’ 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한다. 이처럼 헨리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이름을 통해 표현한다. 반면 형은 영어 이름이 아닌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주체적인 인물인 형은 백인들이 자신의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를 어려워해도 그들의 입장에 맞춰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숨기지도 않는다.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형이 헨리의 이상향인 것은 헨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은 “아름다운 영어”를 사용하여 웅변한다. 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헨리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된 영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헨리 내면에는 형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두려움은 이러한 욕망을 가려 버린다.

헨리와 루잔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친구와 같은 허물없는 관계가 된다. 헨리는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한편 호글랜드는 헨리가 상담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릴 정도로 루잔과 자주 만나고 스파이 임무를 망칠 정도로 루잔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호글랜드는 헨리에게 루잔에 대한 임무를 끝내라고 지시하고 루잔을 미국사회 내에서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헨리는 이를 알아차리고 루잔에게 닥칠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루잔을 만나고자 하지만 스파이 동료 잭(Jack)은 이를 저지한다. 결국 헨리가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전에 루잔은 카리브해에서 열린 의사 회의에 참석했다가 보트 사고로 사망한다. 헨리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 준 루잔을 속이고 자신의 스파이 행위가 그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에 괴로워한다. 스파이와 염탐 대상, 상담의와 환자의 관계를 잠시 벗어나 루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이

33) 『The NewYork Times』, 1995, July 10.

다. 그래서 헨리는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스파이 일에 회의를 느낀다. 하지만 그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아직 헨리는 그가 자신의 염탐 대상인 소수 민족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유색 이민자 중 한 명으로 자각하지 않지만 루잔과의 만남은 헨리가 진실하게 자기 상태를 표현하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호글랜드는 헨리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가 정체성이 모호했던 상태로 되돌아오길 바라는데, 이는 헨리가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호글랜드가 헨리를 지배하는 것이 어렵고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호글랜드는 헨리가 다음 임무인 존 강을 수행하면서 성실한 스파이, 희미한 정체성을 가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호글랜드의 기대와 달리 헨리는 오히려 존 강을 통해 원래 자신이 가졌던 미국인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과 한국의 특성을 모두 지닌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을 갖추간다. 이창래는 한국계 미국인인 존강을 등장시킴으로써, 헨리의 정체성의 탐구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을 것임을 암시한다. 헨리에게 존 강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이며 존 강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부정해온 자아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헨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³⁴⁾ 존 강은 한국 전쟁에서 고향과 가족을 모두 잃고, 퇴역하는 2성 장군의 하우스 보이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이다. 그는 도둑질로 연명하는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미국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존 강은 성인이 된 후 자수성가하여 뉴욕 시의원이 된다. 그는 소수 민족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이민자들의 지지를 받고 뉴욕 시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다. 헨리는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존 강이 시장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주류사회의 기득권층이 존 강에 관한 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추측한다.

헨리는 첫 만남에서 존 강의 짧고 단정한 검은 머리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와 존 강을 비교한다. 존 강은 아버지와 외모는 비슷했지만 아버지

34) 구은숙, 「문화/인간 엿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파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7.1 (2000): 53.

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인물이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을 두고 개인의 생계를 꾸리기도 벅차 하던 아버지와 달리 존강은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 존 강은 헨리가 상상해왔던 이상적인 한국계 미국인의 모습이 실현된 존재이다.

그를 알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한국 남자가, 단순히 존경받는 청과상이나 세탁소 주인이나 의사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라는 비좁은 범위 바깥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는 공적인 큰 인물이라니. 그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야망을 보여 주었다. 내 상상 속에서 그 야망은 한국 남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에너지를 바쳐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에게 수치를 주거나 우리를 학대하려 하는 자들을 늘 경계하던 나의 부모와 달리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

Before I knew him, I had never even conceived of someone like him. A Korean man, of his age, as part of the vernacular. No just a respectable grover or dry cleaner or doctor, but a larger public figure who was willing to speak and act outside the tight sphere of his family. He displayed an ambition I didn't recognize, or more, one I hadn't yet envisioned as something a Korean man would find significant or worthy of energy and devotion; he didn't seem afraid like my mother and father, who were always wary of those who would try to shame us or mistreat us. (p. 139)

헨리는 존 강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꾼다. 이창래는 존 강을 헨리와 달리 언어적으로도 결핍되지 않고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모습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작가가 헨리에게 언어의 내용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언어 사용을 하는 존 강을 롤모델로 제시함으로써 헨리가 본받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존 강은 아버지와 같은 이민 1세대이지만 “아름다운, 거의 형식미를 갖춘 영어(a beautiful, almost for-mal English)” (p. 23)를 구사한다. 존 강은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어려움 없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오직 한 명, 루잔 앞에서만 자신의 생각을 말해왔던 헨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피력하는 존 강을 본다. 존 강은 헨리가 이상적인 형의 모습을 통해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 즉 한국계 미국인이 영어를 떳떳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존 강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한다. 존 강은 한국어에 능통하며 한국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한국 민요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는 지배어와 모국어, 즉 영어와 한국어 둘 다 능통하게 사용하며 두 언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존 강의 언어는 헨리의 아버지가 서투른 영어를 사용하고 헨리가 한국어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한 쪽에 치우친 언어가 아니다. 헨리의 언어는 자신의 불완전한 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담겨있고 어떤 언어의 사용도 편하지 않은 결핍된 상태인 반면, 존 강의 언어는 당당하고 한 가지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풍부함이 넘치는 상태이다.³⁵⁾ 존 강은 헨리에게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사이에서 한 쪽만을 택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 언어가 혼종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영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헨리가 언어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존 강의 언어에 대한 가치관은 그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에도 드러난다. 학교에서는 유색 이민자들이 영어교육을 받지만 외부에서는 그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장려하고자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존 강은 미국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소수 민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뭔가 더 주는 것을 반대 (They’ re against giving the politicos)” (p. 37)하는 백인들은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반기지 않고 존 강은 정치권의 비난 대상이 된다. 백인들은 아직 다양한 언어가 영어와 함께 미국에 공존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헨리는 홍보 담당자로서 존 강의 정치적 행보를 따라다닌다. 헨리와 존 강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통하는 것이 많아 일하는 시간 외에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헨리와 존 강은 자신들의 가족 또는 이민자로서의 삶

35) 김미현, 「이창래 소설의 경계 사유와 혼종화 과정」, 『우리말언어학회』 62 (2014): 346.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어민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대화 틈틈이 존 강은 헨리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다. 헨리는 존 강과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의 형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시도한다. 존 강의 사무실에 폭탄이 터져 그의 경호원인 에드워드도 (Eduardo)가 사망한 일로 존강이 실의에 빠져있을 때 헨리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그의 영어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러자 헨리는 존 강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순간들이면 존 강이 우리가 아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바라게 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영어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닿을 수가 없다. 내가 피터의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한국어로 그에게 대꾸를 하고 싶다. 거리와 고개를 숙이는 절로 이루어진 우리의 말쑥한 언어로 .그 언어라면 진짜 비밀들을 천천히 불러낼 수도 있고, 천천히 드러낼 수도 있다.

I wish for John Kwang to start speaking the other tongue we know; somehow our English can't touch what I want to say. I want to call the simple Korean back to him the way I once could when I was Peter's age, our comely language of distance and bows, by which real secrets may be slowly courted, slowly unveiled. (p. 275)

헨리와 존 강 사이에는 자신들의 민족성이 담긴 한국어가 존재하고 그 언어에는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사고와 의식이 배어 있다. 헨리는 서투른 한국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와 존 강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이 더 잘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 헨리가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한국어를 스스로 다시 쓰고 싶어 하는 모습은 본인의 내면에 감춰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언어 찾기를 시도함을 의미한다. 헨리의 언어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억압받던 모습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자유롭게 발화하는 모습으로 회복한다.

존 강의 경호원 에드워드도가 죽은 이후 백인사회가 용의자를 유색 이민자로 모

는 여론으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존 강은 헨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위로를 받는다. 이제 존 강에게 헨리는 직원 이상의 의미이다. 존 강은 헨리와 대화 도중 ‘헨리’ 라는 영어 이름 대신에 ‘박병호’ 라는 한국어 이름으로 그를 부름으로써 헨리가 자신의 민족성을 그의 앞에서 드러내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존 강은 헨리와 술을 마시는 도중 노래에 “온 나라의 정신(the spirit of an entire country)” (p. 297)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한국 노래를 권유하고 헨리가 자신의 노래를 따라 하도록 한다. 존 강은 노래 가사에서 등장하는 한국인의 애환과 정서를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지만 헨리는 아직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헨리는 존 강과 같이 노래하면서 가슴 한 편에서 쓰라림을 느끼면서 한국어와 한국 노래에 서려 있는 한국인의 정신과 정서를 미숙하게나마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존 강은 헨리에게 한국어를 접할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에게서 영어를 없애지는 않는다. 그는 추가적인 언어로 한국어를 제시하며 헨리의 표현을 돕는다. 존 강은 “자네!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어떤가? 여기는 미국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어. 필요하면 영어로 말해 봐. 다 내놓고 얘기해. 자네는 이것을 원하잖아.(Why not yell at me? This is America, we can do this. Say it in English if you have to. Get it out in the open. You want this.)” (p. 300)라고 말하면서 헨리에게 주체적인 언어 사용을 권유한다. 존 강은 헨리가 규범이나 형식을 너무 신경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다. 존 강은 이미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헨리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편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존 강은 어떤 언어가 되었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도록 하면서 헨리가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도록 부추긴다.

이제까지 헨리는 엽담 대상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나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으므로 엽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헨리는 자신의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존 강과 유색 이민자에게 연대감을 느낀 뒤로 존 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른 임무 때보다 어려워한다. 호글랜드가 그 보고서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한 순간, “마치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적인 일을 우리 가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as if I were offering a private fact

about my father or mother to a complete stranger in one of our stores)” (p. 147)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헨리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존 강에 대한 보고서를 호글랜드에게 보낸다. 그는 주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이창래는 헨리가 루잔과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심지어 자신이 주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받는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를 쓰는 모습을 통해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창래는 헨리가 루잔과 친해지면서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자각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루잔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헨리는 개인 발화의 욕구가 생기고 이상적인 자신의 자아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언어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창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헨리가 존 강과의 만남을 통해 영어로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언어의 형식에 상관없이 한국어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다. 헨리는 존 강과 시간을 보내면서 ‘완전한 미국인’이 되 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창래는 헨리가 언어적 측면에서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받아들이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균형을 찾아가고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도 찾아나가는 것을 암시한다.

IV. 정체성의 확립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체성을 형성한 헨리는 자신의 언어와 주변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헨리가 깨달은 언어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단순히 현재 시점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새롭게 정립한 언어 관념은 헨리가 과거에 사용하고 들었던 언어를 되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언어 관념이 잘못 됐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현재의 언어 사용에 충실하고 타인이 자신과 같이 언어에 잘못된 관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헨리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은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고, 타자의 언어를 존중하며,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세대의 정체성까지 도와주는 단계로 이동하며 발전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런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헨리는 과거에 접했던 유색 이민자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 특히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언어를 되뇌어보고 아버지에게 관한 시각을 변화시킨다. 어린 시절 헨리는 밤낮없이 일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시간이 있어도 한국어가 편한 아버지와 영어가 편한 헨리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여 부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헨리는 아버지의 처지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어렸을 때는 백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굶신거리는 아버지를 싫어했다. 아버지는 백인의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백인 과부가 사과를 깨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단골이라 괜찮다며 넘어갔다. 아버지는 백인들에게 굶신거리며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헨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자신의 불편을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아버지가 못마땅했다. 아버지가 보장받고 싶어 하는 권리는 “조용히 살 수 있는 권리, 국세청과 부패한 시 검사관과 거리의 범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저 마음 편하게 가게나 운영할 수 있는 권리(The sole right he wanted was to be left alone, unmolested by the IRS and corrupt city inspectors and street criminals, so he could just run his stores.)” (p. 195) 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저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

버지는 헨리의 눈에 사회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물이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으로 비친다.

한편 존 강은 아버지와 같은 이민 1세대로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헨리의 아버지의 상황과 처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헨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언어 대신 존 강의 언어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 강이 아버지의 상황과 삶을 대변함으로써 헨리는 그를 통해 아버지의 목소리를 미약하게나마 접할 수 있다. 존 강은 아버지에게 백인과 흑인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헨리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우쳐준다.

헨리는 루잔과의 만남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문화적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이민자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헨리는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유색 이민자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했던 헨리는 아버지도 자신처럼 유색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것임을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가 미국사회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오직 부의 축적뿐이었다. 헨리는 아버지가 나름대로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삶을 재편성하고 원하는 인간상을 다시 만들어갔음을 이해한다.

헨리는 어릴 적 아버지의 서툰 말투와 어조가 배인 영어, 콩글리시를 완벽하지 않은 영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자신을 떠올린다. 헨리는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정확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발음이지만 그 영어를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된다. 헨리는 아버지가 궁상맞게 사는 주제에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핀잔을 주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 아버지의 언어는 가족들을 위한 마음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온 아버지의 희생과 용기가 담겨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서투른 영어는 미국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제 헨리는 주류의 시선을 기준으로 그들의 언어를 비웃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아버지의 언어를 그리워한다. 헨리는 아버지의 언어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무슨 것이라도 할 것 같다. 아버지의 언어, 늘 맹렬하게 돌진해 나가는 그 언어의 충돌과 강타와 중단. 나는 이도시의 거리들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들어보기 위해 언제까지나 귀를 쫓긋거리며 다닐 것이다.

But now, I think I would give most anything to hear my father's talk again, the crash and ban and stop of his language, always hurtling by. I will listen for him forever in the streets of this city. (p. 337)

과거 한국어를 지우고 싶어 하던 헨리에게 한국의 뿌리인 아버지는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헨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집착하지 않고 영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언어에 대한 고정 관념, 즉 영어만이 유일한 언어라는 생각이 깨지게 되면서 그의 언어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헨리는 아버지의 서투른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그리워하게 된다. 헨리가 아버지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아버지의 정체성의 근간인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⁶⁾ 이제 헨리에게 아버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귀중한 자산이 된다.

헨리가 아버지 언어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의 말도 듣고 싶다.(I want to hear the rest of them, too.)” (p. 337) 라고 말하듯, 그는 아버지의 언어는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언어도 궁금해 한다. 과거에 아버지가 말하던 언어를 되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헨리는 미국 거리에서 아버지와 같은 처지인 유색 이민자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이제 헨리에게 소수 민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헨리는 존 강이 가지고 있었던 유색 이민자들의 정보에 적힌 배우자와 자녀들, 그들의 일자리, 자산과 생활 등을 살펴보다 자신의 삶과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낀다. 헨리는 소수 민족이 자신처럼 미국 내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자신의 처지와 그들의 처지가 같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소수 민족의 이야기는 헨리 자신

36) 김도원, 「다문화 시대의 소수 민족 정체성 연구: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2007), p. 37.

의 이야기가 된다.

둘째, 과거에 유색 이민자의 언어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재의 헨리가 유색 이민자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과거에 유색 이민자의 언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헨리는 이제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여 자신이 만나는 유색 이민자의 언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헨리는 원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도 유색 이민자의 언어를 들으려 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아버지의 언어를 그리워하는 헨리가 더욱더 듣고 싶은 언어이다. 헨리는 존 강 한 사람뿐이었던 한국계 이민자와의 대화의 영역을 넓혀 이제는 낯선 한국계 미국인과의 대화하고자 하는 변화를 보인다. 그레이스와 피트와 한국 국수집에 갔을 때, 헨리는 한국계 미국인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나는 우리말로 뭔가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내 목 안에는 불러올릴 것이 없다. 형편없는 억양의 말을 더듬거리 여자를 실망시킬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만약 내가 문장을, 제대로 된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딸과 아들 이야기를 해 줄 텐데.

I want to thank her, too, with a surprise of saying something in our language, but there is nothing in my throat to call up. I am half afraid of disappointing her with some fumble of poorly accented words. If I had the sentence, the right words, I would ask her about here family and she could tell me about her daughter and son. (p. 315)

그러나 그는 한국계 미국인인 종업원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한다.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인의 모습이 자신의 일부임에도 한국어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러워 아줌마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헨리가 이전처럼 자신을 미국인으로만 여긴다면 부족한 자신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헨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와 달리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다.

헨리는 유색 이민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스파이 활동이 유색 이민자를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기독교층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헨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내가 평생 지고 갈 짐(This forever is my burden to bear.)” (p. 319)이라고 여긴다. 헨리는 어린 시절 이민자의 노동을 착취하던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는 장사를 하면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민자를 고용한다. 미국에서 취직이 어렵고 영어를 잘 못하는 유색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헨리는 아버지가 적은 돈과 거의 썩어가는 과일들을 보너스로 주면서 종업원들을 부려먹었던 것을 비난한다. 하지만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지나온 것이라고 깨달은 후 아버지의 약점이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 결국 헨리는 스파이 직업을 그만두게 된다. 그는 모범 소수 민족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소수 민족의 삶을 공감하면서 화해하고 공존하고자 한다.

셋째,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그치지 않고 유색 이민자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고자 한다. 헨리는 유색 이민자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올바른 언어 관념을 갖고 영어를 배우도록 돕는다. 스파이를 그만둔 헨리는 아내 릴리아의 영어 수업을 돕는다. 릴리아는 소수 민족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제2언어로 가르친다. 헨리가 어렸을 때 완벽한 영어를 요구받은 것과 달리 아이들은 서투른 영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 한다. 언어를 웃음거리로 삼는 창백한 백인 여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엉터리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It doesn't matter what they understand. She wants them to know that there is nothing to fear, she wants to offer up a pale white woman horsing with the language to show them it's fine to mess it all up. (p. 349)

릴리아는 유색 이민자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특히 주류 사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는 자신이 먼저 억압과 기존 규범을 파괴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서투른 영어 또는 엉터리 영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헨리는 언어 괴물 역할을 맡아 아이들이 무서운 언어 괴물을 무찔러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가 언어 괴물을 흉내 내는 것은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인물로 변장하는 것과 달리 다른 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함이며, 이는 헨리가 주체적인 정체성을 찾아나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릴리아의 언어 교정 수업은 어릴 적 헨리가 영어를 권력의 수단, 동화의 수단으로 여기며 들었던 교정 수업과는 다르다. 릴리아는 유색 이민자 아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릴리아의 수업은 아이들이 자신이 지닌 모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다. 언어 교정 수업은 유색 이민자 아이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자신들의 소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어를 이용하도록 도와준다. 영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단계이자 미국인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색 이민자 아이들은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잊지 않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미국에 적응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헨리는 아이들이 모국과 미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릴리아와 같이 이바지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릴리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 이름이 아닌 그들의 다양한 모국어 이름으로 발음한다. 그녀는 억양과 발음에 주의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의 모국어 이름을 비슷하게 소리내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부른다. 고저와 억양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그녀가 원주민의 아름다운 언어 여남은 가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그 어려운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Now, she calls out each one as best as she can, taking care of every last pitch and accent, and I hear her speaking a dozen lovely and native languages, calling all the difficult names of who we are. (p. 349)

이는 릴리아가 아이들이 원래 가진 민족성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릴리아는 아이들이 모두 훌륭한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미국사회 내 구성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비평가들은 마지막 장면이 다문화 사회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헨리는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고 백인인 릴리아가 다문화 사회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장면을 비판한다. 추(Patricia Chu)는 릴리아만이 아이들의 모국어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헨리는 단지 조수 일뿐이라고 설명하면서 헨리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실천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³⁷⁾

헨리의 주체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릴리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모국어로 불러주는 것은 원어민인 릴리아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유색 이민자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역전되어 릴리아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발음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릴리아는 비원어민이 되고 영어는 제2외국어로 바뀌면서 언어들이 우위 없이 혼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릴리아의 말하기는 두 개 이상의 언어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경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제3의 공간을 만든다.³⁸⁾ 이를 통해 언어는 붕괴되거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릴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 민족이 아무리 다문화를 주장하고 요구해도 미국사회 내에서 원어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일문화주의의 시선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다문화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어민들의 참여

37) Patricia Chu, *Introduction in Assimilating Asians: Gendered Strategies of Authorship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P, 2000), p. 3.

38) 김미현, p. 352.

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무시되지 않고 원어민의 목소리를 통해 나온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창래는 작품 내내 헨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미국적인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한국적인 것만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헨리가 둘 중 하나를 꼭 택한다면, 이는 “우리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것, 아니면 스스로 속하게 만들라는 것, 그것도 아니면 꺼지라는(you belong here, or you make yourself belong, or you must go)” (p. 344) 백인들로 인해 미국을 택하고 미국적인 것만을 쫓는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헨리가 또다시 이분법적으로 한국성을 택한다면 그는 자신이 사는 미국사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정체성의 상실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헨리는 이분법적인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이 한국인의 모습과 미국인의 모습을 동시에 지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정한다. 이창래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국을 향한 사회적 동화 모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사회적 동화가 없다면 당신은 언제나 소외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외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들과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소외자처럼 대하지요. 반면에 미국에서 당신이 한 가닥의 문화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즉, 이민자의 본국에서 가져온 정체성과 미국민의 정체성입니다. 미국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국가의 본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입니다. 어떤 문화유산과 자아인식, 동일시 없이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실제로 일종의 가족 의식을 갖고,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요.³⁹⁾

이창래가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정체성, 두 가지 모두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헨리는 자신의 한국인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미국인의 모습 또한 지켜나간다. 두 나라의 경계선 사이에 위치하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인의 정체성을

39) 류선모, 『미국 소수민족 문학의 이해-한국계편』 (서울: 신아사, 2002), pp. 313-314.

동시에 지나는 것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본질인 것이다.⁴⁰⁾ 두 나라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헨리의 모습은 한국어를 밀어내고 미국인이 되고자 하지만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여 경계에 위치했던 과거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타자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주체적인 시선으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스스로 경계에 위치한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헨리는 완전한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되지 못하는 정체성 결핍의 인물이 아니라 한국인과 미국인의 모습이 혼합되고 문화가 풍부하게 넘쳐나는 혼종의 인물인 것이다. 즉, 이창래는 헨리를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두 영역의 사이에 존재하고 두 영역에 모두 속하는 인물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가 유일한 언어이고 미국인이 되어야겠다는 관념에서 벗어난 헨리에게 미국은 더 이상 백인 주류 계층만이 중심인 사회가 아니다. 그가 사랑하는 뉴욕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인종, 다문화의 도시이다. 헨리는 자신과 같이 혼종성과 잡종성을 가진 다양한 인종들이 오고 가는 플러싱 거리(streets of Flushing)를 좋아한다. 이창래는 미국 거리를 바라보는 헨리의 시각의 변화를 통해 헨리가 공존과 화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후반부에서 헨리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다양한 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리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종교와 모국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리의 광경을 좋아한다(p. 346). 미국은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서투른 영어이든 모국어이든 상관없이 미국 거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된다.

40) 서은경, p. 117.

V. 결 론

미국사회는 다문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어가 국가어나 마찬가지로 정도로 영어 사용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언어를 말할 수 없는 것, 즉 언어 구사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모국어를 아무리 잘 구사해도 원어민들은 소수 민족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소수 민족 이민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 또는 주변부에 머물러야 한다.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한국계 미국인 헨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회복을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헨리는 영어만을 자신의 언어로 여기고 영어를 터득하는 것이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마저 하나의 목소리, 즉 영어로만 말하길 바란다. 그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는 영어를 배우는 데 혼란을 주고 방해만 될 뿐이다.

헨리는 자기 민족의 영혼과 문화가 배어있는 모국어를 멀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헨리의 정체성을 대신할 수도 없다. 헨리는 한국어를 무시하고 영어를 받아들이지만 결국, 둘 중 아무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헨리의 언어는 언어의 형식, 즉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다. 언어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그의 정체성도 모호함의 경계 선상에 놓이게 된다. 헨리는 언어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혼란을 겪는다. 헨리는 원어민들처럼 완벽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인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발음과 억양, 고급 단어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중요한 발화 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다. 또한, 미국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백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헨리가 다니는 스파이 회사의 사장인 호글랜드는 헨리가 사회에서 눈에 띄는 존재, 중심부에 위치하는 존재이길 원하지 않으며, 대신 그가 과묵하고 믿음직한 정도의 발화만을 하길 요구함으로써 헨리는 자신의 자아마저 드러낼 기회를 봉쇄당한다. 결과적으로, 헨리는 강요된 언어로 인해 자신의 언어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통제당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마저 표출할 수단을 잃고 만다.

정체성 혼란 상태에서 헨리를 구해주는 건 자신과 같은 입장인 소수 민족이다. 루잔은 헨리가 자신이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그는 진정한 친구 같은 루잔 앞에서 가식적이고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이야기하게 된다. 언어를 권력이나 동화의 수단이 아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헨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헨리는 존 강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아간다. 한국계 미국인 존 강은 헨리에게 이상적인 한국인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존 강은 영어를 잘 구사하면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헨리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한다.

헨리는 이토록 루잔과 존 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면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을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면서 이제까지 원어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무시하던 아버지의 언어, 소수 민족의 언어도 받아들이게 된다. 헨리에게 더 이상 서투른 영어, 다양한 나라의 언어는 듣기 싫은 언어가 아니다. 그는 영어만이 전부인 것 같던 미국사회에서 들리는 소수민족의 다양한 언어를 그리워하고 듣고 싶어한다. 그는 단일언어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가 미국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수 민족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소수 민족을 해하고 원어민들을 위해 일하던 스파이로서의 직업을 그만둔다. 헨리는 더 이상 원어민들에 의해 길들여진 모범 소수 민족이 아니며 그는 자신과 닮은 소수 민족과 화해하고 공존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그는 소수 민족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 릴리아의 수업에서 언어 괴물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언어 괴물을 무찌르면서 언어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서투른 영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가 절대적이라는 생각 대신 미국사회에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처럼 영어에 의해 소외당하는 경험 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형성해 나가길 바란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릴리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불러주는 것은 백인 주류 사회가 미국에서도 영어뿐만 아니

라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동참하길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헨리는 다언어주의를 통해 다양한 언어가 공존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닌 인물이며 한국인과 미국인의 모습을 둘 다 지닌 한국계 미국인임을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창래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소수 민족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꼭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여 단일한 민족성과 언어를 지니지 않을 확률이 높은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 살면서도 여전히 소수 민족을 배척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Text:

Lee, Chang-ra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이창래(정영목 역). 『영원한 이방인』.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5.

2. References:

- 권혁경, 임진희.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변방적 자아상의 표현」. 『현대영미소설』 5.2 (1998): 251-276.
- 고부용. 「이창래의 『원어민』-비어있는 표기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3 (2002): 619-638.
- 구은숙. 「문화/ 인간 엿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파이로서의 작가」. 『현대영미소설』 7.1 (2000): 47-63.
- 김도원. 「다문화 시대의 소수 민족 정체성 연구: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미현. 「이창래 소설의 경계 사유와 혼종화 과정」. 『우리말언어학회』 62 (2014): 335-358.
- 김선영.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창조적 이중의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역학과 미국학 석사학위논문, 2011.
- 류선모. 『미국 소수민족 문학의 이해-한국계편』. 서울: 신아사, 2002.
- 박수정.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22 (2004): 111-131.
- 변종민. 「이중언어교육과 선택의 갈등-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시각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4.2 (2002): 115-130.
- 서은경.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자기배반의 삶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본 ‘Korean-American’의 생존방식 탐구」. 『우리어문연구』 58 (2017): 91-122.
- 안광. 「한국계 미국소설가의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9.3 (2010): 139-166.
- 안철택. 「문화제국주의와 언어의 다양성」. 『독일문학』 100 (2005): 153-180.
- 왕철.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엿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 3 (1996): 23-39.

- 우제원. 「Ralph Ellison의 *Invisible Man*과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인물 정체성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선주. 「미국이주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소설』 15.1 (2008): 95-119.
- 이숙희. 「스파이와 모델 마이너리티를 넘어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주체의 가능성」. 『새한영어영문학』 51.2 (2009): 133-156.
- 이혜경.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회복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임진희. 「아시아계 미국문학에 나타난 언어의 재정의를 통한 탈식민적 정체성의 추구」. 『영어영문학』 45.3 (1999): 647-669.
- 장경렬. 「정체성의 위기, 언어의 안과 밖에서 - 이창래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읽기」. 『문학판』 1.3 (2002): 280-300.
- 조규익. 「바벨탑에서의 自我 찾기」. 『어문연구』 34.2 (2006): 161-182.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1998.
- Chin, Frank. *The Chickencoop Chinaman and the Year of the Dragon: Two Plays*. Seattle and London: Washington Press, 1981.
- Chu, Patricia. *Introduction in Assimilating Asians: Gendered Strategies of Authorship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P, 2000.
- Du Bois, W. E. B. *The Souls of Black Folk*. Chicago: A. C. McClurg & Co., 1903.
- Duignan, Peter. *Bilingual Education: A Critique*. Palo Alto, CA: Hoover Institution, 1998.
- Engles, Tim.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Multiethnic Literatures of the United States* 22.2 (1997): 140-142.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 John, Sarah Anne. *The Very Telling (Conversations with American writers)*.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6.
- Kim, Elaine H.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1982.
- Lee, Chang-rae. “The Faintest Echo of Our Language.” *Bold Words: A Century of Asian American Writing*. Ed. Rajini Srikanth and Esther Iwanaga. New

- Brunswick: Rutgers UP, 2001. pp. 21-28.
- Lowe, Lisa.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P, 1996.
- Monaghan, Peter. "A Korean-American Novelist's Impressive Debut."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41.30 (April 7, 1995): A6.
- Pavlenko, Aneta. "Second Learning by Adults: Testimonies of Bilingual Writer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9.1 (1998): 3-19
- Phillipson, Robert.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P, 1992.
- Rozakis, Laurie Z.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lpha Book, 1999.
- 『The New York Times』, 1995, July 10.
- Wong, Sau-ling Cynthia. *Reading Asian American Literature: From Necessity to Extravag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93.

<Abstract>

Language and Identity in *Native Speaker*

Park, Eu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main character by focusing on the language in Chang-rae's 'Native Speaker'. In the background of American society which monolingualism left, this paper will show how a Korean American loses his identity under the control of his language. Also, in the process of finding his own language, this paper looks at the process of making the new identity of a Korean American.

Henry, the main character, is alienated from American society because he cannot speak English. He learns English in a desperate attempt to escap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from mainstream society of America. He is a Korean American, but he only speaks in English. He ignores and does not use Korean which is not the mainstream language. Henry loses his Korean identity as he loses the Korean language that contains Korean culture and thought. English is forced on to non-mainstream groups as a mainstream language. English has taken control of Henry's Korean, even his ethnic identity. The mainstream society asserts control not only on Henry's Korean identity, but also over his personal identity by the English language he insists on using. As a result, he loses both his ethnic identity and individual identity, thus being controlled by his own language.

To re-establish his Korean identity, it is important to get his own language out of the forced language that causes the loss of identity. The minority group characters, Emile Luzan and John Kang, help Henry use his own language and form an identity from it.

Luzan, a Filipino-American psychoanalyst, helps Henry say what he wants without hiding himself. Korean-American John Kang helps Henry regain his Korean.

Henry restores his divided self and recognizes the true mixed language and identity of himself. He now independently stands on the Korean-American border by his own choice, not forced to locate there by mainstream society. He redefines himself as a Korean-American with a new identity which includes both nations' identities. Having established this identity, he quits the spy job and helps his white wife Lelia teach English classes to help minority children adjust to American society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He uses the very language that made him lose his identity to form a noble, right identity; now a hybrid of Korean-American culture.

In conclusion, the novel takes an in-depth look at the identity of Korean-Americans while dealing with the problem and influences of language. In addition, 'Native Speaker' introduces the subject of the meaning of minorit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by show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enry's minority identity as an autonomous eg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9.